

우리나라 학제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의 첫날은 한 사람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때부터 文科와 理科가 분리되어 교과목의 내용과 시간 배당이 달라지며 학생들도 자신의 자질·취미·장래희망등에 따라 文 아니면 理를 택하여 각기 정한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高 2학년을 맞는 자녀를 둔 가정도 이때부터 자식의 장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자녀가 딸이나 아들이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모든 성차별은 이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할 수 있다.

아들을 둔 가정의 고민은 대개 이렇다. 이녀석을 장차 판·검사시킬까, 경제학자를 만들까, 실업가를 만들까, 아니면 과학자 혹은 첨단분야의 기술자를 만들까 등등 자식이 직업을 통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안정, 적당한 명예로 가문을 높이는 그러한 직업의 소유자가 가능한 길을 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초점에 본인의 자질과 성취욕, 부모의 희망등이 참고된다.

그러나 딸의 경우를 보자. 高 2학년을 맞는 딸이 文과 理의 두 계열 중 택일을 위한 자문을 부모에게 구했을 경우, 선택의 기준을 아들과 같은 초점에다 맞출까. 그렇지 않는것 같다. 대개의 경우 부모는 딸의 전공선택이 장차의 직업이나 그 직업이 가져다 줄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 그것을 감당할 자질과 능력등을 고려 하기에 앞서 결혼이라는 변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딸 아이는 그저 시집 잘 가는 게 제일이지.」 무엇이 시집 잘가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딸들은 철들면서부터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다가 高 2에 이르면 이 말의 암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高 2학년의 남녀의 계열을 택하는 형태 속에서 남녀간의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우수한 성적의 소유자는 문과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 이

는 법과대학의 예비고사 커트라인 점수가 높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지금은 판·검사의 인기가 좀 떨어져서인지 돈의 위력을 실감했음인지 경제나 경영등 다른 사회과학분야쪽의 인기도 높아졌지만 아무튼 사회과학분야의 인기도는 문과지망생의 성적수준을 좌우한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는 반대다. 공부를 잘한다 싶으면 理科를 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우수한(?) 남자들이 박대한 이공계를 우수한 여성인력이 대신 카바한다는 거창한 비전

傳統的 子女觀 女性觀의 모순

權 英 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수실장〉

이 있어서도 아니고 과학이나 기술을 일생동안 반려로 삶을 별다른 확신도 없으면서 덜컥 理科를 택하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토록 우수한 여학생들이 계속 지원한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이나 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여성과학자 탄생비율은 보잘것 없으니 말이다.

이공계를 택한 딸들은 전공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쯤 「딸 아이는 文科가 더 좋다. 시집가서 잘 사는데는 理科보다 문과가 더 좋다」라는 문과 선택 권유를 받았음직 하다. 여자가 이공계를 전공하면 외골수가 되고 답답하며 여자로서의 나긋나긋한 맛이 사라진다고들 보는 편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수준비를 위한 文科권유를 받았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히 뿌리치고 용감하게 理科를 택한 여학생들은 예비고사 응시원서를 내기 전까지는 어깨에 힘을 준다. 문과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서 우쭐대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고교생활이 다하고 예비고사를 통하여 진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즈음에는 꽤나 당혹하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에는 공부도 재미있었고 성적도 자신이 있었으나 대학이라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랴 싶어서 전공선택을 심사숙고하게 되면 막상 아찔하다고들 한다. 갈



데가 없다고 울상을 짓는 것이다.

그때서야 과학의 길이 평생직의 길임을 어렵듯이 알고는 약간 겁도 나고 자신도 없어지며 취미도 싹 가셔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택하여 놓은 길이요, 예비고사과목의 변동을 시정하기에는 자신도 없어서 택한 길을 내달아 그대로 대학까지 가기는 간다. 그리고는 결혼이란 핑계를 만나 과학자나 과학기술인의 경력 쌓기를 포기하고는 평범하디 평범한 주부라는 평생직을 갖고는 좋아라 한다. 우수한 머리와 그동안 한 공부기 아깝다 싶은 專業主婦된 과학도들은 전기휴즈만 끊어져도 電工을 불러 댈만큼 과학과 기술에서 손을 떼버리고 만다. 남학생이 文科를 택하는 이유와 결과는 여학생이 理科를

택하는 이유와 결과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얼핏 보면 여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장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공을 택하지 않았느냐, 남학생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싸하게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평생직을 가지고 자아성취를 위해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가정적 여건이 전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딸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여자다운, 여성의 역할관등을 익히면서 취업이나 평생직보다는 가정·육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란다. 남성들도 다 결혼생활을 성숙하게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정·육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함이 없이 취업, 평생직·사회적인 성취등의 중요성만 인식시킨다.

학교 또한 다를 바 없다. 중·고교의 경우 여학생에게는 기본소양으로 가정과목을, 남학생에게는 직업과 관련되는 실업이나 기술과목을 가르친다. 이렇게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분담의식을 고정화시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이 대학에서 생각한 평생직의 길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바가 없는 것이다. 과학은 여성의 분야가 아니라는 편견속에서 자란 여성이 과학에의 도전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상하기는 커녕 되려 제정신 찾았구나 하고 칭찬할 판이다. 답답한 것은 바로 이점이다. 흔히들 오늘을 고도산업사회라고 하며 정치나 경제나 심지어 가정까지도 과학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여성이 과학에서 배제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야. 여성으로 하여금 과학과 기술과 밀접해지도록 하기 위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본다. 高 2때의 과학자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